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誠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멕시코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처럼, 부쩍 가까이 다가오는 마피아들의 위험은 사역에 대한 많은 생각과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돌보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합니다. 지난달에는 성도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어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너무도 잔인한 모습이어서 참담한 장례식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뉴스로 접하며 먼 소식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침표! 새로운 시작>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교만을 마치고 살아가던 하비엘 형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교의 과정을 마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형제와 함께 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사역자로 준비하게 위해 4년 전에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드디어 한 단계 과정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내와 사랑, 친절로

인도해 준 선교사에 대한 감사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남편의 헌신에 동역자로 걸어가는 카르멘(Carmen)자매의 신실함에 또한 감사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올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방학을 맞이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해 오던 Kids Cafe에 초대되었던 아이들을 초대하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사들과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별로 나누어 담당된 교사들이 함께 진행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찬양과 율동, 게임 등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주간에 전도한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를 가지고 선물을 구입하면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르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진 않지만, 그 가운데도 영혼구원과 제자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숙제를 가지고 돌아오다>

매년 여름이면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위출(Huichol)원주민 마을에 다니면서 말씀잔치인 여름성경학교(VBS)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며, 필요한 구제양식(옥수수수와 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의료, 구제 사역은 준비하지만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나나 다를까 청소년들이 주일학생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처럼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20년을 넘겨 사역해 오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인데, 섬기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과 위출원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의 진전과 확장되어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간절한 기도와 희생적인 섬김의 동역이 있기에 가능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섬김으로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10월 3일-8일에 있는 현지목회자 세미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 참석하는 목회자들과 섬기는 성도들이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에 깊이 헌신하도록
 -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2. 신학교를 졸업한 하비엘(Javier)형제가 목회자로 잘 세워져가며 필요가 공급되도록
3. 산타바바라(Santa Barbara) 위출원주민 마을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잘 진행되도록
4. 둘째 은서의 대학입학 감사, 아내의 건강과 예은/은서의 대학생활 중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멕시코에서 2023년 8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